

자기소개서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학교에 오기 전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꿈을 품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꿈을 꾸는 자는 그 꿈을 닮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끊어진 실 잇기를 하다가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밤 깊도록 불을 켜고 공부를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무역개방으로 생계가 어려워 학습지 교사와 학원 강사를 하다가 학교를 그리워했습니다. 진짜 교육을 하고싶어서 가슴을 두근거렸습니다. 졸업 후 10년에서야 학교에 왔습니다. 누군가 “학교”라고 말하면 저는 “희망”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교문을 열고 걸어온 희망의 길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눔세꿈, 나를 넘어서는 변화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교육’으로 희망을 꿈꾸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나를 넘어서는 성찰적 지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나눔세꿈’ 교사로 불립니다. 소중한 그 무엇이 되고 싶다는 소망으로 교육활동을 해왔습니다. 배운다는 것이 희망이고 가르친다는 것이 꿈을 꾸는 것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고, 잘 살 단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라는 교육 사상가의 말을 살아내고자 교육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꿈꾸게 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신념을 가지고, 좋은 삶을 위해 배움중심수업 실천,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는 비교과 활동, 경남교육청의 교육정책 지원활동, 교과 연구 활동을 했습니다.

토론 수업 전문가, 질문 수업으로 역량을 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질문을 바꾸면 문제가 바뀌고 문제가 바뀌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질문과 변화, 그리고 성찰은 제 수업의 핵심 가치입니다.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교사 자생 동아리 ‘즐거운 국어수업 연구회’에서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과 토론수업을 적용한 연구 수업의 결과 2006, 2007년에 교실수업 개선 유공교사, 현장교육 유공 교사가 되었습니다. 토의 토론 수업에서 생각의 힘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을 발견하였습니다. 지식을 주입하는 강의식 수업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열심히 가르친 내용을 학생들은 기억하지 못했고, 단순 암기만을 되풀이하는 수업에서 학생의 고등사고력을 기를 수 없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절대적 지식이 없는 이 시대에 전통적인 지식을 주입하는 수업의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삶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토의·토론 수업에 삶의 문제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부터 토의 토론으로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질문 중심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하였습니다. 2012학년도에 국어교육연구회 연구 위원으로 ‘창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서사중심 토론수업 모형 및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교과연구회 1등급을 수상하였습니다. 미래 역량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의성을 기르는 수업’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고, 비판적 역량과 협업적 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토론 수업 전문가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관계성에 기반한 연구로 수업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사가 지식 생산자로서, 교육 및 사회 변혁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공동의 노력으로서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2015년에 조직한 경남토론교육연구회는 수업 수업으로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각 교과별로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제 수업에서는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기르기 위해 수업을 디자인하고 과정중심평가를 적용하여 수업에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하였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주관한 '수업나눔 실천 교사', '배움이 즐거운 수업나눔축제'의 연수 강사로 배움과 성장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2017학년도 '경남교육청 배움중심수업 실천교사'로 선정되어 미국과 캐나다의 'PBL(Project Based Learning)' 수업을 배우고 왔습니다. 질문을 통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질문중심 토의 토론 수업 모형'을 적용한 과정중심평가의 사례를 나누고 있습니다.

2019년 교육전문직 장학사가 되어 양산 '또우랑'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2021년 창원 '3살한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학교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연구하고 함께 실행한 동료애의 경험이 사다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문 퍼실리테이터로 민주적 회의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습 코칭전문가 과정을 공부하고, 청소년 생활 교육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청소년 지도사 자격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2018년에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고교교육력제고 업무를 하는 장학사가 되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퍼실리테이션을 알게되었습니다. 2018년~2023년까지 3개의 기관에서 교육하는 퍼실리테이터 자격 입문과정을 72시간 이수하고 30시간이 넘는 퍼실리테이션으로 전문가 인증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퍼실리테이터로 민주적인 학교 회의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촉법소년과도 '책이랑 꿈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는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구심점입니다. 건전한 가치관을 세우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희망을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거울 앞에 서 떨어지지 않는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몰고 갑니다. 책으로 데려오기 쉽지 않지만 제 열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책 읽기의 가치를 살아낸 모든 것을 책에 담았습니다. '최고의 질문을 하는 사람, 북퍼실리테이션'은 2022년 8월에 제 삶을 증언하듯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들과 늘 함께 손잡고 걸을 수 있는 책을 썼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고스란히 남겨 놓았습니다. 독서로 꿈을 만나고 그꿈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진로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삶이 여러분을 향해 함께 학교 안의 **모든 아이들의 진로를 독서와 연계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삶에 관심을 가진 분이 제 책을 읽고 이들과 책읽기를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북퍼실리테이션연구회는 학교 안, 학교 밖 청소년의 꿈을 위한 책 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도 꿈 날개를 펼 수 있다고 '나를 찾는 독서' 진로독서수업자료집을 만들고, **국제진로콘퍼런스에서 교과연계 독서수업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책 읽기 사업은 북퍼실리테이션 연구회 연구 위원과의 긴밀한 관계성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1호 판정을 받은 아이들과 함께 책 읽기는 강한 유대와 연대감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늦도록 수업 후기를 공유하고, 설계를 위한 연구 모임을 가졌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아는 지식 습득 수준을 넘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성장' 행복한 삶을 위한 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배움과 성장'을 위해 학생 참여를 넘어 학생의 삶이 되는 수업이어야 합니다. 수업과 독서가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저를 따뜻한 열음이라 합니다

제자는 저를 시냇물 아래 살고 있는 눈 동그랗고, 여린 것들, 버들치며 송사리 품 안에 숨쉬는 것들을 지키려 온기를 다 내어준 두꺼운 열음을 닮았다 합니다. 이 제자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의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본인의 고백에 따르면,

“2학년이 되면서 저는 뭔가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싶고 변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당시 또래들과 달리 종합학원에 다니지 않았던 저는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방과 후 교실인 독서토론반 수업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때부터 문제아의 일상, 그리고 제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학교는 항상 가기 싫지만 가야만 하는 곳이었는데 독서토론반 수업 이후부터 제게 **학교는 살아있는 배움이 있는 곳**이 됐습니다. 등굣길은 즐겁고 하굣길은 매번 아쉬워 친구들과 선생님을 붙잡고 놓아드리지 않았던 그때가 다시 떠오릅니다.”

라며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10년 전의 제 마음 안에서 차올랐던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문학을 나도 해내고 싶다는 꿈. 이때부터 저의 국어국문학과 진학은 결정되어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전공을 살려 취직할 마음도 없고 친구들에게 ‘굵은 학과’ 아니냐고 놀림 받지만 산맥까진 못 되더라도 높은 산 한 봉우리는 언젠가 쌓아 올리고 싶은 꿈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자는 꿈을 따라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였고, 올해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역량이 중요한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학교였던 제자의 속 깊은 정과 역량을 알아본 것입니다. 채용대 전환의 시대에 강조되는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는 신입 선발 면접 질문이 무너져 가는 회사를 일으켰다는 어느 회사의 사례로 보아 우리는 공존의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경험으로 학교의 성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료는 저를 창의, 열정,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 합니다

경남토론교육연구회에서 함께한 동료는 창의성, 열정,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토론연구회를 만들고 퍼실리테이션을 적용한 ‘학생인권조례’, ‘학생이 행복한 학교’ 토론회를 함께 했습니다. 제가 보아온 저자는 사랑, 창의, 열정이라는 낱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학생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새롭게 표현하고 설계하여 이를 실행하는 열정이 탁월합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책이 저자의 삶을 증거합니다. 책과 질문과 삶에 대한 성찰이 퍼실리테이션과 어우러진 이 책으로 새로운 장이 열리고 더욱 풍성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동료의 말이 예언처럼 들립니다. 온 힘을 다해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저는 변화를 꿈꾸며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김해가야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을 만나고 선생님들의 열정을 만나고, 교육의 희망을 만나는 꿈을 꾸며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을 가만히 쓸어봅니다.